

독일회국 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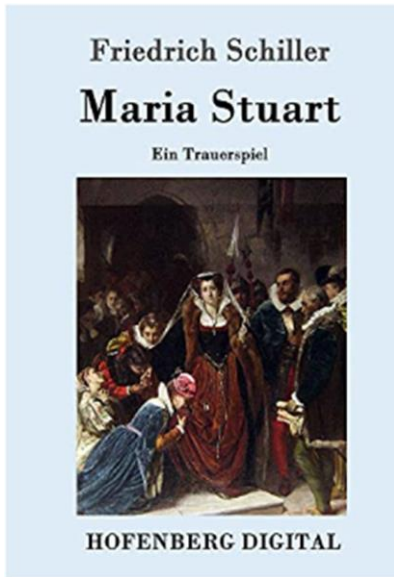
인천대학교
2023-1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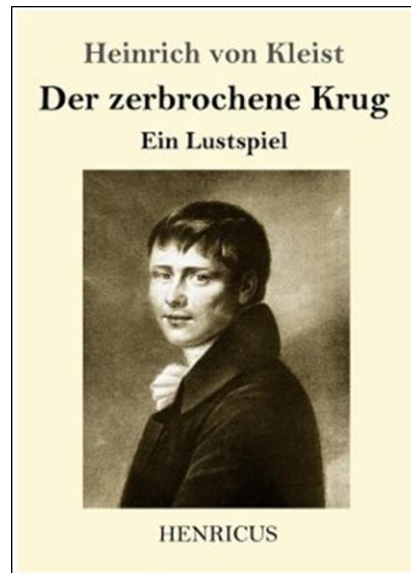


한 학기동안 함께 살펴본 드라마(희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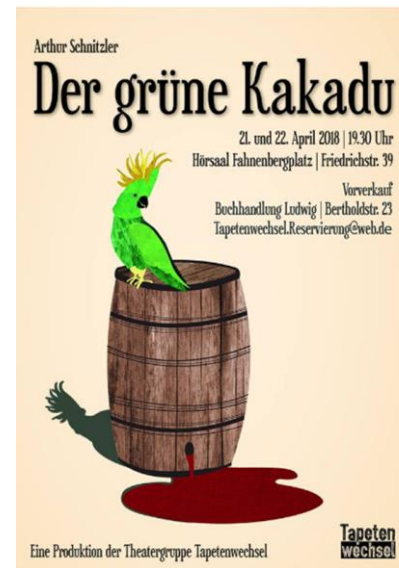
『마리아 슈트아르트』



『깨어진 항아리』



『초록 앵무새』



『예외와 관습』



『황폐한 물가 메데아자료 아르고호
사람들이 있는 풍경』



『남는 것 - 사랑으로부터』



페르디난트 폰 시라흐: 『테러』(2015) Ferdinand von Schirach: 『Terror』



T Tagesspiegel

Terror – Ihr Urteil: Im Namen des Zuschauers

『테러』 2015/16년 독일 119개 극장에서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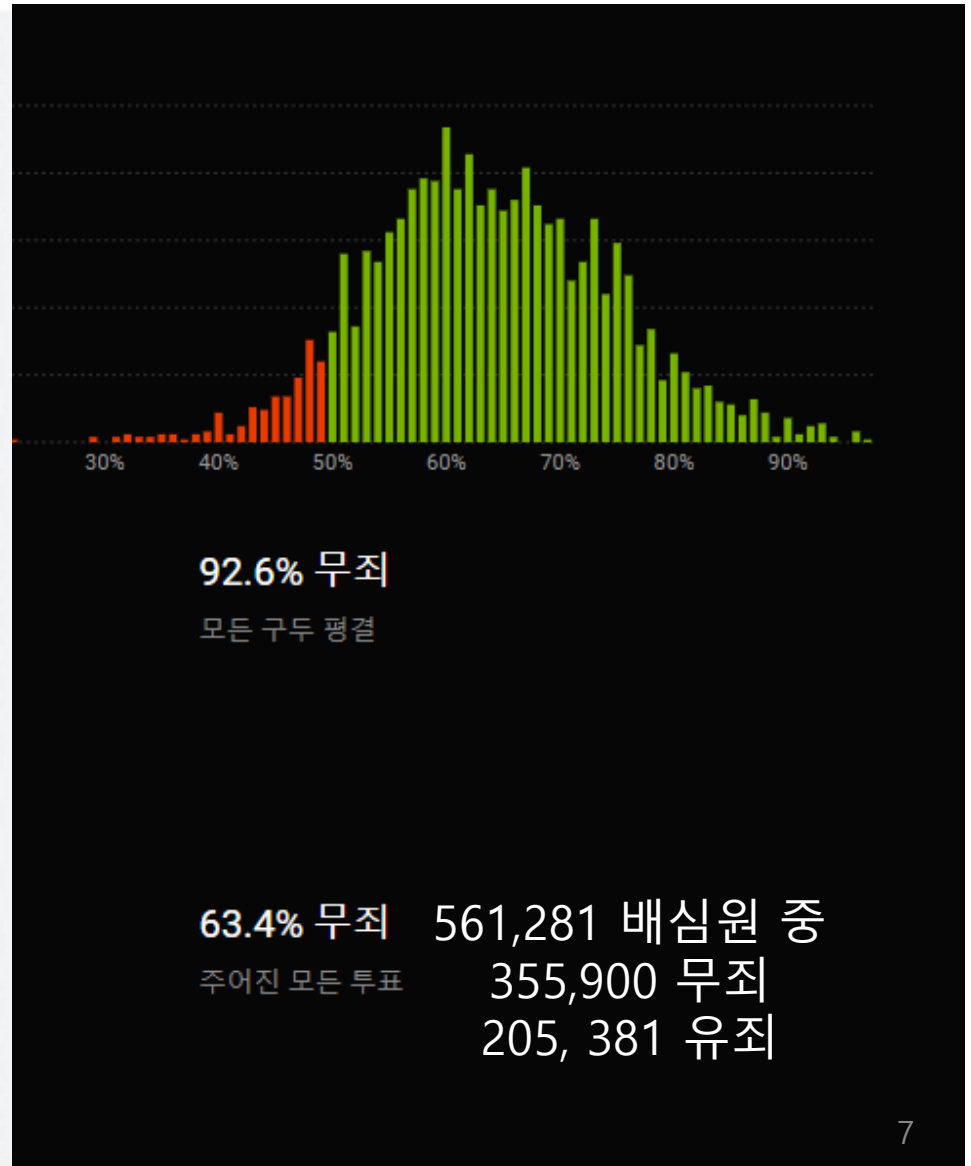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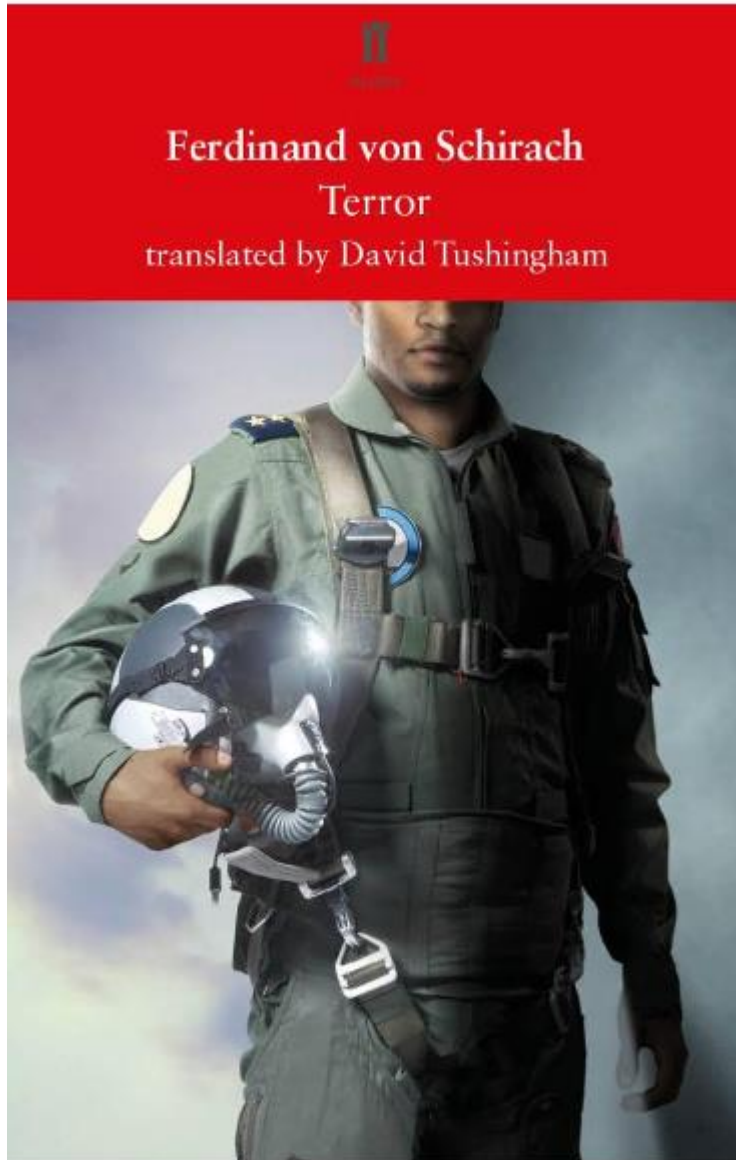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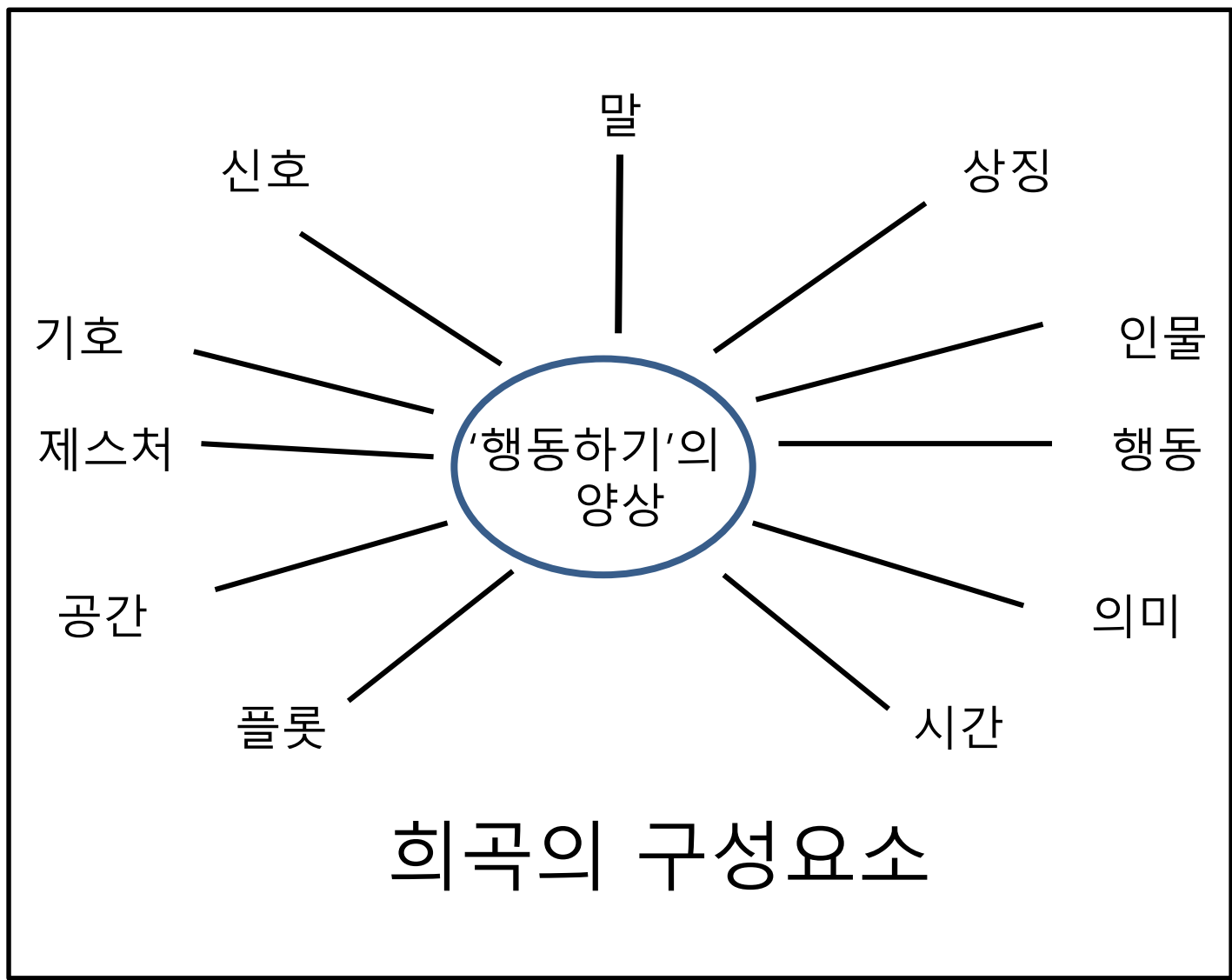
페르디난트 폰 시라흐: 『테러』 Ferdinand von Schirach: 『Terror』

베를린에서 뮌헨으로 가는 LH 2047편에는 164명이 타고 있다.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비행기는 7만명의 팬들이 축구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스타디움으로 향하고 있다. 독일 연방군의 전투기 조종사인 Lars Koch 소령은 반응해야 한다. 시계는 똑딱거리고 Koch는 여객기를 격추한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는 법정에 선다.

폰 쉬라흐는 그 첫 연극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질문을 한다. 관련된 사람들의 수에 무관하게 하나의 생명이 다른 생명과 비교될 수 있는가? 164명을 희생시켜 7만명의 생명을 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제3자가 없을 때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책임자는 누구인가? Lars Koch가 홀로 법정에 서야 하는가? 판사는 결정을 해야 한다.

윤리와 법의 토론장으로서 『테러』무대의 투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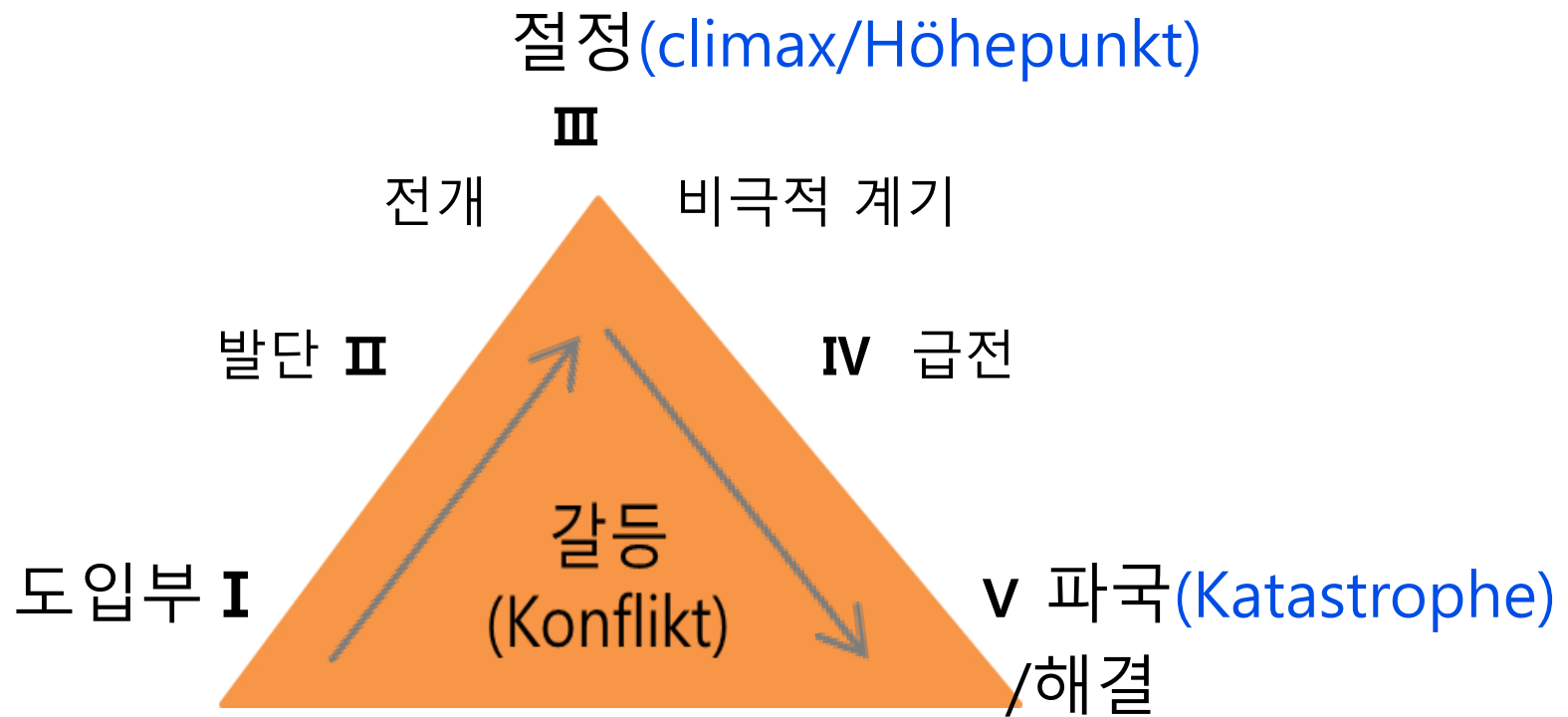




드라마(희곡)의 구조 형식

- a. 점층적(sich steigernd)인 극 구조
- b. 삽화적(episodisch)인 극 구조
- c. 상황적(situativ)인 극 구조
- d. 해프닝 (happening)
- e. 이미지 연극(The Theatre of Image)

드라마(희곡)의 관습(고전적 구성양식)



대결 — 위기 — 절정 — 해결

드라마/희곡의 형식(태)들

- a. 비극
- b. 희극
- c. 희비극
- d. 멜로드라마
- e. 소극(farce): 상황 희극
- f. 서사극: 무대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연단
- g. 부조리극: 삶의 황폐함, 불확정성을 기본적으로 드러냄
- h. 포스트 드라마 (탈희곡화된 드라마)
 - => 드라마의 형식은 극작가의 비전과 형식(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구성한다



Danke Schön!

